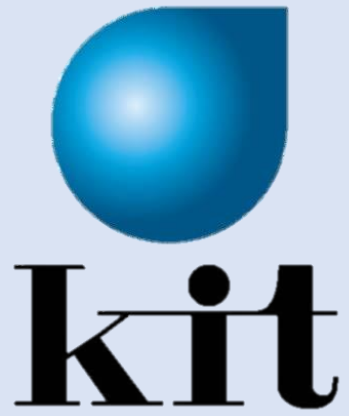




독자생존 또는 국립대 통합에 대한 의견

제8대 금오공과대학교 총장임용 후보자

기호 3번 **이재원**

1. 독자생존과 통합에 대한 우리의 선택



| 나윤수 〓 본지 기문

2005년이후 통폐합이 이뤄진 9개 국립대 가운데 통폐합 성과가 가장 낮은 대학은 전남대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교과부의 발표에 따르면 '국립대학 통폐합 지원사업 연차 평가 실시 정책 연구'에 따르면 전남대와 여수대 통합은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9개 조사대상 학교 중 꼴찌였다.

- **통합 후**
- **모든 학과 정체성 상실 (행정학과 제외)**
- **여수캠퍼스 부총장 권한 약화**



올해는 본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합해 본교 상주캠퍼스가 탄생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지역 국립대의 위기 상황 속에서 통합의 길을 선택했지만, 통합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 상주캠의 현실은 열악하다. 지속적인 학생 인원 감축으로 재학생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고, 대학생활을 위한 인프라와 지원은 충분치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재 첫 번째 기사에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주캠퍼스의 문제점들과 현장을 담아내보았다●

부족한 전임교원, 사라지는 강의를

- **전임교원 수 129 → 92 감축**
- **직원 76명 감축**

kit 금오공과대학교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2. 단계별 대응방안 및 목표



1단계 유지충원을 기준 구조조정 탈출

- 조직 정비 및 강화
- 기획홍보처 기능 강화
- 홍보 다각화
- 입시제도 개선

RE 특성화 기반 확보

2단계 RE 특성화로 집중 변화 혁신 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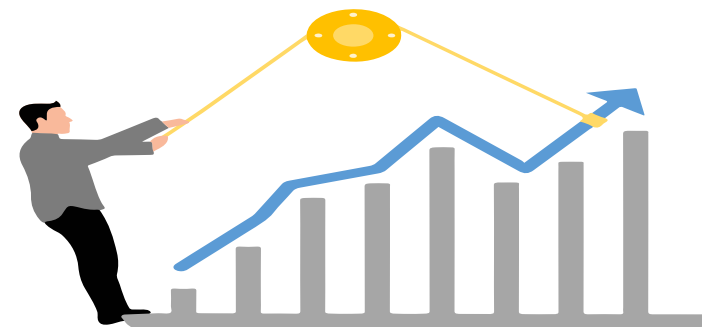
- 학사조직 개편
- 교과과정 개혁
- 전공교수 충원
- 교육인프라 개선
- 교육방법 도구의 도입

RE 특성화 성공!

3단계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 확보

- RE 특성화의 성공적 이행
→ 국가 균형발전 기여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양성
→ 지역인재 육성
→ 지역경제 활성화

RE 특성화 성과 확산



결론

독! 재! 생! 존!

제언

이재원 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함께 **합시다.**
우리함께 **잡시다.**
우리함께 **뛰십시오.**